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367호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SK하이닉스
2.8만명 중
99.5%가 '정규직'
04

Economy

코스피 2250.57 (0.00)

코스닥 688.41 (0.00)

금리(국고채 3년) 1.43 (+0.01)

환율(원·달러) 1159.40 (-1.70) 〈17일〉

감사 '3%룰', 사외이사 '6년 제한'… 상장사 주총악몽

올해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상장사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도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총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투표는 여전히 정족수 확보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외감법 시행은 주총을 앞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달라진 주총 환경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주총대란(大亂) 오나

〈上〉 상법개정안·新외감법 후폭풍

올 상장사 560여곳 사외이사 교체
임기 최대 6년 제한에 선임 골머리

3%룰 적용에 정족수 확보도 비상
경제단체·코스닥協 "3%룰 폐지를"

올 주주총회는 상장사의 감사 선임 문제로 대란이 예상된다.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해당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진다. 감사선임은 '3%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찬성표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가 한꺼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 "유능한 사외이사도 교체"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합쳐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자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경총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면서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면서 상장사들은 당장 올 주총부터 사외이사 선임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현재는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003곳 중 올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66개로 추산된다. 임기 제한에 걸려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에 이른다. 전체 상장사 사외이사의 19%에 해당한다.

〈2020년 시장별 사외이사 선임수요 분석〉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전체	
		회사수	사외이사수	회사수	사외이사수	회사수	사외이사수
신규 필요	금융업	9	15	4	4	13	19
	非금융업	233	311	333	407	566	718
연임 가능	금융업	30	91	5	1	35	102
	非금융업	175	352	147	241	322	593
총 합계		447	769	489	663	936	1,432

/상장사협의회

아울러 개정 상법은 ▲최근 2년내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의 임원이나 피용자로 근무한 자 ▲해당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자 ▲1억원 이상 해당 상장사와 거래관계를 맺어온 자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세부 요건을 담고 있어 적합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3%룰 폐지해야"

더 큰 문제는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경우다.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은 사외이사가 감사위원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감사위원까지 바꿔야하는 상황 속에서 정족수 조차 채우지 못해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하는 주총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룰은 코스닥협회를 비롯, 경제 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제도다. 기업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인 자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58년째 유지되고 있는 제도지만 정작 주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자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주총 대란이 현실화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3%룰 적용에 따라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등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2018년 76개에서 2019년 188개로 급증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당초 238개 기업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 시행 전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한 기업들도 올해부터 임기 만료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우려가 더 크다. 대주주의 지분 비중이 높을 뿐더러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있는 개인투자자가 많지 않아서다. 대주주 지분이 50%인 경우 해당 지분이 3%로 제한되면서 거의 모든 주주들의 찬성표를 얻어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1.8개월 수준이다. 주주평부를 폐쇄하는 12월 31일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주총이 열리는 3월까지 주식을 들고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런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통한 찬성표를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사진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개점 기념식에 참석한 신격호 명예회장 내외와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병세 급격 악화… 향년 99세
'창업 1세대 시대' 막 내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99세. 〈관련기사 2면〉

롯데그룹은 "지난 18일 밤부터 신 명예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9일 오후 별세했다"고 밝혔다.

일본에 출장중이던 신동빈 롯데 회장도 바로 귀국해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종현 SK 회장 등이 재계를 이끌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1922년 경상남도 울산 삼남면 둔기리 재력가의 5남 5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1년 사촌형이 마련해 준 83엔을 들고 1942년 약관(弱冠) 20세의 나이에 울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신 명예회장은 1967년 한국에서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한 후 한일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롯데를 90여개 계열사, 매출 100조원에 달하는 등 재계 서열 5위 기업으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슬하에 2남 2녀를 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장남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차남이다. 동주·동빈 형제는 신 명예회장이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결혼한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신 명예회장이 도일(渡日) 전 열여덟에 결혼한 고 노순화씨 소생이다. 막내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1970년대 미스롯데 출신인 서미경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쌍용車 '경영 정상화' 총력
대주주, 産銀에 지원 요청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방한
흑자 전환 3개년 계획 추진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3라인 직원들이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11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쌍용자동차가 오는 2022년 흑자를 목표로 3개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한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는 2300억원 규모의 투자 의지를 내비치며 우리 정부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마힌드라와 우리 정부가 의견 조율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지난 16~17일 방한해 쌍용차 노사,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을 만나고 돌아갔다.

마힌드라 측은 쌍용차에 자금을 투자하고 글로벌 업체(포드)와의 제휴를 통해 3년 뒤 흑자 전환을 시키겠다고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힌드라 측이 큰 틀의 밑그림을 그려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은 쌍용차가 세우게 된다.

쌍용차는 당초 지난해를 흑자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티볼리 신차 판매 부진 등으로 오히려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경영난이 심화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회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당기순손실은 1855억원이다. 이는 2017년(658억원), 2018년(618억원) 2년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치다. 쌍용차는 2016년 이익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12분기째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표면적으로 대주주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동걸 회장이 직접 고엔카 사장과 면담을 하면서 지원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산은은 면담 후 자료를 내고 "쌍용차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참과 협조하에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